



힐링워크숍

서울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는 작은도서관 운동과 지역문화운동을 펼치며,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조직 되었고 지금까지 교육, 문화, 돌봄 등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독서문화운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회 성북 마을책잔치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지역주민을 위한 책잔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책 읽는성북 활동 중 어린이 책 중심의 책모꼬지 주최로 마을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중심으로 마을 독서문화활동(책읽어주기, 책놀이, 좋은 책 목록 나눔, 작은도서관 책 활동, 독서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장된 활동가 자원인 '마을책문화지원단'을 조직구성 하였고, 종암, 월곡, 정릉□길음, 장위□석관, 돈암□보문의 5개 권역 마을 독서문화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북의 40여개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마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이 되고자 독서문화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교육사업 (아띠교육,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가 아카데미, 북스타트), 문화사업 (책잔치 및 책모꼬지, 독서문화만들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나눔 서포터즈, 연합토론, 돌곶이 학교, 책친구), 돌봄 및 복지사업 (독서멘토링, 도서관이 키우는 아이, 작은도서관코디네이터) 등이 있습니다.

2011.04. 성북마을 책잔치 준비위원회 1차 모임 2011.05.28. 1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
 2011.06.17. (가)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발기인 구성(작은도서관4, 비영리단체1)
 2011.10.09.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북 페스티벌 참여
 2011.12. (가)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대표 선출,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출범
 2012.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회원가입
 2012.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2개소(아름드리도서관, 달맞이도서관)
 2012.04. ~ 2013.02. 독서멘토링 사업 진행(청덕초, 송곡초, 장위초)
 창립총회, 김미희 1대 대표 취임
 2012.06.02. 2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성북구청바람마당)
 2012.09.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북 페스티벌 참여
 2013. 함께하는 성북마당 회원가입, 3, 4, 5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
 성북구 민간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 진행
 2013.~2018. 성북구사립작은도서관실태조사(문화체육과+작도넷)
 2013.04. ~ 2014.02. 교육복지협력사업 독서멘토링 사업 진행
 (청덕초, 송곡초, 장위초, 장월초, 장곡초, 석관초, 송덕초)
 2013.12. 제 1차 정기총회 개최
 2014.04. ~ 2014.12. IBK 휴먼네트워크 독서멘토링 진행
 2014.04. ~ 2014.12.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 진행('동아리로 화합하는 마을')
 2014.04. ~ 2017.12. 책친구 사업진행
 (C&M 사회공헌기금사업 4개 지역아동센터 독서프로그램 운영)
 2014.05. ~ 2014.12. 교육우선지구 성북구 특화사업
 '우리마을도서관과 함께 하는 틈새교육돌봄' 운영 진행
 2014.11. 6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 작은도서관책소풍 진행(총20회)
 2014.12.05. 제 2차 정기총회 개최, 안혜영, 허현주 2대 대표(공동) 취임
 2015. 도통아리활동(성북문화재단)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협력체계 구조화
 2015~ 2016. 여성중앙MOU체결(전래놀이, 환경)
 2015~2018. 동덕여대 자원봉사자 연계
 대학생 봉사자 교육 및 작은도서관 봉사 연계 운영(3년)
 2015~2017. 아띠교육-작은도서관활동가양성
 2015~2018. 북스타트 연계(성북문화재단)
 2015.04 '누리보듬사'교육 공동주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에듀덕터바른배움)
 2015.01. ~ 2015.12. 혁신교육사업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교실 진행
 2015.03.23. 마을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과제, 활성화지원 방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
 2015.04. ~ 2015.11. 성북구마을만들기사업 진행(마을책문화지원단-작은곰자리)
 2015.05. ~ 2015.12.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교실 진행
 2015.05. ~ 2016.02. 성북교육복지협력사업 경계선아동 지원사업 협력운영
 2015.09.12. 7회 성북마을책잔치 개최
 2015.12. 8회 성북마을책잔치 개최
 2015. 정든마을주민운영위원회 협약체결(작은도서관설립)
 2015.12.04. 제 3차 정기총회 개최

2016.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간담회
 2016.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가입
 2016.06 '어깨누리' 경계선아동, 느린학습자 교육 공동주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에듀덕터바른배움, 교육복지센터)
 2016.~ 갑을공작모임(구립도서관+사립작은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협력체계 구조화
 2016.~2017. 성북구 책모꼬지 어린이책 부스운영
 2016.~2017. 참길음운영회의 참여(길음뉴타운+길음종합사회복지관)
 2016.04. ~ 2016.06. 제4회 유럽단편영화제 공동주관(꿈길제작소, 성북문화재단)
 2016.05~ 장위동 틈새돌봄교실 운영위원회 참여
 2016.04. ~ 2016.10. 성북구마을만들기사업 진행-작은곰자리('도서관이 키우는 아이')
 2016.07. ~ 2016.12. '시시콜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 진행
 2016.12.02. 제 4차 정기총회 개최, 김정숙 3대 대표 취임
 2017.~2018. 다문화돌봄이학교 지원(성북문화재단)
 2017. 제1회 담비맘 교육 공동주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정든마을주민운영위원회)
 2017.04. ~ 2017.11. 성북구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연합사업('책맛나네')
 2017.07.14. 정든마을작은도서관 개관(마을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립 및 공동운영)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서 만든 1호 도서관 및 사무국)
 2017.11.~12. 마을사서교육 운영(성북구평생학습관, 동덕대학교 연계)
 2018.02.~12. '폼생폼사' 중학생 책토론동아리 공동주관(성북교육복지센터)
 2018.02.07. 제 5차 정기총회 개최, 김은경 4대 대표 취임
 2018.05.01. 임시총회 개최, 김은하, 장동희 5대 대표(공동) 취임
 2018.07.~12.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단 활동(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구조 마련)
 2018.07.27. 한성대학교 협약식
 2018.08.08. 성북문화재단 협약식
 2018.09.06. 제2회 담비맘 교육 진행
 2018.9.15. 성북구 책모꼬지 어린이책 운영("악당이 사는집")
 2018.10.~11.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가 아카데미운영(성북구평생학습관 연계)
 2018.10.26. 공론장 개최(함께하는 성북마당 연계, "지역사회내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
 2018.11.26. 정릉새일하기센터 MOU체결
 2019.2.08.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9.02~ '폼생폼사' 중학생 책토론동아리 공동주관(성북교육복지센터)
 2019.06.1. 제9회 성북 마을책잔치("색다른재미잔치" 길음동) 개최
 2019.07.08. 스스로 아카데미 "힐링워크숍" 진행 (강릉)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회원현황>

성북지역 내 작은도서관 15개소, 단체1개, 개인회원 4명, 후원회원 1명 (2019.6 현재)

저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는 15개의 사립작은도서관 회원과 1개의 단체회원, 4명의 개인회원과 1분의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15년 이상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신 분들부터 이제 막 도서관을 시작한 분들까지 다양한 경력과 기간을 가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처음 도서관을 사랑하고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정신없이 진행하며 그동안의 시간들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내가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내가 왜 작은도서관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그 뜨겁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만나게 된 스스로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는 우리가 정말 작은도서관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개인으로서의 나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십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힐링아카데미의 주제 “우리는 왜 작은도서관인가?” 하는 물음을 통해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작은도서관과 그것을 통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나를 만나며, 그래도 함께 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잡고 다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하고자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벗어나 짧지만 의미 깊은 하루 동안의 일탈과 힐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힐링워크샵 진행내용〉

일 시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강사 혹은 진행자
7/8 장소 : 강릉경포대, 안목해변, 커피거리, 동화가는	1. 강의명 : 나는 왜 작은도서관인가?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마음나누기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정체성 작은도서관을 20년간 운영하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김미희 -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문 - 정든마을 도서관운영자 - 성북구 마을활동가

〈힐링워크샵 현수막〉



왜 작은도서관인가?

김미희(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문)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의 삶에 독서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교육과 맞물려 주민들의 독서문화진흥에 힘써 왔습니다. 최근 도로와 철도 등을 짓는 기존의 전통적인 SOC가 아니라, 생활 SOC로 지역의 문화·체육 시설 등을 확충하는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념을 도입해,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을 짓는, 이른바 '도서관 SOC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들은 개인과 지역의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골목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과 밀착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세워진 작은도서관들은 책읽기를 기본으로 돌봄, 마을배움, 동아리, 책놀이 등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과 노력을 이어오며 공동체의 핵심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역할에 대해 국가로부터의 사회적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왜 작은도서관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작은도서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따져보기로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존재가치

첫 번째, 스스로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책을 읽고 그 맛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로 만남의 시간과 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지요. 출발이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스스로의 의지가 없이는 지속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책과 사람,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점차 사회적 관계 속에 생겨나는 필요와 욕구를 바탕으로 놀거리와 나눌 거리를 챙기며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으로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자발성이 주인되어 있기에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의 도전과 행복이 중심에너지가 되어 움직여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자본과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스스

로의 길이기에 억지로가 아닌 저절로 채워짐을 느끼곤 합니다.

책을 읽고, 빌려주는 곳으로의 역할로부터 지역사회 책문화 활동을 통한 아이와 어른, 지역주민들의 행복 지원 센터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중심되어 골목골목에 위치한 생활밀착형으로써의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웃한 사람들 간의 책을 통한 관계맺음으로 소통의 다리가 되어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있게 합니다.

설립자, 운영자, 이용자 누구라도 자리를 넘나들며 함께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뒤섞임이 가능한 곳입니다. 생활권 가까이 있기에 간편한 차림과 특별한 준비 없이도 잠시 짬을 내어 들락날락 거리며 말을 섞고 마음을 섞어가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곳이기에 좋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마을 만들기, 부모커뮤니티, 품앗이, 도시재생, 마을 네트워크 등의 이름으로 삶의 장소에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은 이미 마을에서 책을 통한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따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른은 물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책을 읽다가,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은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참여형 활동들을 통해 발견과 해결의 장이 펼쳐집니다. 작은도서관은 토론이 살아있는 민주적인 현장으로서 생동감 있는 공동체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자산

작은도서관으로 마을에 자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책과 사람과 공간이며 함께 나누고 누리는 문화로 채워질 때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더라도 책은 작가가 세상 모두에게 거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읽는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재미와 감동이 되어 다른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책읽기의 장에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토론으로 넓고 깊은 거침없는 이야기가 나뉘는 수가 더욱 많습니다. 이 같은 소통의 과정에서 지식은 물론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한 나뉘지

고 공유됩니다.

작은도서관은 설립자, 운영자, 이용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살아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6천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소유가 아닌 공유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지닌 작은도서관으로서 작동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붙들고 가야 할 작은도서관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성

책이 내는 소리를 즐기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죠. 누구라도 함께 책 맛을 보자고, 이웃을 초대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즐기며 지냈어요. 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움직이는 작은도서관이 되어 이웃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책을 만나고, 그 곳에서 이웃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다시 책을 찾아 작은도서관으로 걸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었더라?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았나? 왜 그렇게 되었나? 그 때 누가 있었지?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은 어떤 곳이었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읽은 책의 감동들은 지금 필요한 지혜로 맘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또 책에 손이 갑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정해진 주체와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토론과 재미삼은 활동을 시작으로 책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주인되어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즐기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작은도서관은 역할에 따라 많은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공간에서 책과 함께 즐기던 활동에서 느끼게 되던 자연스러운 감동이나 효과에 대한 덧이름과 같습니다.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는 주민을 주체로 등장시키기 위한 목표로 주민과 단체 중심의 사업이 기획되고 이름들이 생겨났습니다. 작은도서관 또한 기존의 책과 사람과 활동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계획하여 적합성에 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빌려주고 읽는 정보 부분에 치중된 단편적인 역할을 도서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러

한 작은도서관의 마을사업 활동 참여를 보면서 도서관 활동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활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과 삶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똥을 쓰신 권정생 작가님은 쓰시는 창작동화를 그냥 사는 이야기라고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 시간 시간들의 모습과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웃고 울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 서로는 만나서 감동, 지혜 등등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이제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는 활동이든 작은도서관에서의 활동은 책으로 성숙된 시작과 과정과 정리가 맞물려져 돌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맙시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책제목 안에 마을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채워갑시다.

“힐링워크숍”과 함께한 소감

워크숍을 마치며 우리들 스스로 참여 후기를 각자 남겼습니다. 바라는 점, 아쉬운 점, 참여 한 소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라는 점으로 첫째 마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둘째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소통과 연대의 공간으로의 역할을 잘 했으면 한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조직과 활동가들이 많아져 자유롭게 자리를 비울 수 있길 바란다.

아쉬운 점은 첫째 아카데미 일정이 당일이다 보니 서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





둘째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한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노하우와 장점을 체계화 하고 모델화 하여 전달하지 못해 아쉽다.

참여 한 소감은 첫째 처음 참여 하는 활동인데 친근감 있고, 허물없이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요. 원래 인간관계는 함께 먹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깊어지는데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둘째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운영진의 고민과 애써 주심이 하루종일 느낄 수 있었어요. 셋째 일과 회의가 아닌 쉼과 여유로움이 함께한 하루여서 좋았어요. 일에 쫓겨 돌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 도서관 선생님들과 대화 나누며 도서관을 하는 나를 돌아보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넷째 ‘힐링’을 주제로 한 스스로 아카데미 나는 왜 작은도서관을 하는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열악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작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았어요. 크기, 양이 작을지 모르지만 정성과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아요.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이기에 오늘에 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우리의 작은 시간 속에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